

### 2010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 셋째 자녀 임신·출산비용 지원 논에 쌀 대신 콩·밀 재배 유도

◇일자리 창출=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및 바꾸쳐 적용사업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육시설에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도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 무상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계층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내년부터 '70% 이하'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難妊) 부부에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고용전략회의 가동  
'4대강' 60% 달성  
가스로 연동제 늦춰  
중기 비상지원 연장**

◇서민생활 안정=경기회복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고, 잠재적인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3년 평균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여건 강화를 위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활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이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담합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내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애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3월로 늦췄다. 서민생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막고 고령사회 준비=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임신·출산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 보

리교(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인공수정 시술비도 새로 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실버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천가구에서 내년 1천500가구로 늘리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역(逆)모기지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나 단독주택에서 실버주택까지로 확대한다. ◇부동산 안정기조 유지=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상시적으로 변질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는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장대 부동산 가격이 오를만한 요인이 있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금방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 진정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지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비상지원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서신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1~6월에 보증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면 만기를 늘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한계기업은 만기 연장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퇴출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정부는 이미 일부 공구의 사업을 올해 착공한 데 이어 내년에도 2차분 사업을 3월까지 착공해 보 건설, 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굴 등을 완료하는 등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는 다양한 발주기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공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논에 콩·밀 재배 유도=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이 빚어지고 있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콩, 밀, 조식(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을 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재배된 콩을 전량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제도를 개선하고 저유관계 수입물량(TRQ)으로 수입하는 콩 물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00인 캐리어전 광주·전남시사문화가(회장 김종두)가 한국 만화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광주·전남 오피니언리더 100인 캐리어전(20일까지)' 개막식이 10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열렸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신규사업 45건 3천800억, 계속사업 80건 2조6천억

### 광주시 2011년 국비지원사업 보고회

광주시가 오는 2011년 광주연구개발 특구 육성(5천200억원),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육성(3천억원) 등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 2조5천억원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는 이미 확보된 내년 국비 2조3천억원에서 2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10일 오후 '2011년 국비지원사업 1차보고회'를 갖고 2011년 국비

지원요청사업으로 신규 발굴·개발한 총 2조9천847억원 규모의 사업을 정했다. 이중 신규사업은 45건 3천837억원, 계속사업은 80건 2조6천10억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융합복색산업클러스터(4천425억원),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설(1천530억원), 아시아 창작 예술인촌 조성(306억원), 광주문

화산업 클러스터 조성(1천500억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300억원), 광주 근린공원생태 숲조성(4천117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조9천62억원), 광주~화순 및 광주~공동혁신도시 광역철도 건설(2조196억원) 등이다. 시는 추후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1단계로 문화관광 등 7개 분야별 T/F 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매달 한 차례 이상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자체

적 개최, 팀별 사업발굴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방문 설명 활동 강화, 지역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방재정의 자생력 확충과 자율성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반영팀에 대하여는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최초 도심형 다운하우스 첨단 비버리힐즈  
2단지 20필지 분양개시  
▶ 단지 최소 분할 면적은 150평 이상(분할 100평)  
Sample House  
파/격/분/양  
1. 전용면적 139평 5명분할 24개월 최저 가격  
2. 한·글·기초교육 마스터 대단지 단지  
▶ 분양권 보유분은 사전에 계약하며 투숙가능  
시행사 그린비(주) 062)375-7000  
062)974-5553

## 성장 조절 마이크로RNA·표적유전자 발견

### 영광 출신 김빛나리 서울대 교수

영광 출신 세계적 생명과학자인 서울대 김빛나리 교수(사진)가 신체 크기와 발육기 성장의 조절 과정을 밝혀냈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빛나리 교수팀은

초파리와 사람 세포주를 이용, 신체 성장을 조절하는 마이크로RNA와 그 표적유전자를 발견하면서 인슐린 신호 제어에 따른 세포 성장 및 대사 조절 과정을 증명해냈다.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과학저널 셀 11월호에 발표된다. 김 교수는 초파리의 마이크로RNA 중 하나인 miR-8(인간은 miR-200에

해당)이 없어질 경우 난쟁이 초파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마이크로RNA가 초파리 유년기 시절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촉진시켜 신체 성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 마이크로RNA는 USH라는 표적유전자(인간은 FOG2라는 유전자에 해당)를 제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슐린 신호전달을 조절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나아가 마이크로RNA를 통한 조절 작용이 사람의 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마이크로RNA의 표적유전자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진화적으로 보존돼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초파리와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마이크로RNA인 miR-8의 표적유전자들 중 보존된 유전자들을 집중 연구, 표적유전자를 찾았다. /김광성기자 kps@



### 본보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광주일보 윤영기(왼쪽)·최경호 기자가 10일 서울 중구 '레이첼 카슨홀'에서 '제12회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언론상'을 받았다. 광주일보 채희중·나명주·윤영기·김대성·최경호·이은미 기자 등 6명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실종취재·보도한 '고마워요 당신의 떠남'을 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을 써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